



## What's new

# Connect for Impact

제 51 호 | 2021.08.31

딜로이트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Contents

---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흥진석 신임 대표이사 선임

---

딜로이트 안진, 2021 신입회계사 정기채용 실시

---

딜로이트 안진, 해사분야의 급변하는 국제 규제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

“아태지역 경제성장,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에 달렸다”

---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조직·인사솔루션 전문가 정현석 부사장 영입

---

딜로이트 컨설팅, 고용노동부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수상

---

딜로이트·스위스 상공회의소 공동, 제 2 회 DX 어워드 개최

---

“기후행동 바로 나서면 2070년까지 2300 조 원 부가가치 창출”

---

##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홍진석 신임 대표이사 선임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는 파트너 총회 의결을 거쳐 홍진석 신임 대표이사를 6월 28일자로 선출했습니다.



홍진석 신임 대표이사는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의 인수합병(M&A)부문 핵심 리드 파트너로 최근 5년간 해당 비즈니스를 3배 이상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에는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를 포함하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CSO(Chief Strategy Officer)로서 그룹 경영 전반을 챙기며 성장세를 회복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점, 지난해 6월 딜로이트 AP(아시아퍼시픽) 합류 이후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딜로이트 AP 간의 성장 시너지 창출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이 주요한 배경이었습니다. 특히, 홍 신임 대표이사는 글로벌 No.1 프로페셔널 서비스 펌인 딜로이트의 전략과 성공방식을 한국 내 이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딜로이트 컨설팅의 변화의 방향 제시, 구성원들을 리드할 통합의 리더십에서 호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신임 대표이사는 "글로벌 No.1 브랜드인 딜로이트는 전략수립에서부터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등 차별화된 엔드 투 엔드(End-to-End)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이 최대 강점인 펌으로 한국시장에서도 글로벌과 동일한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딜로이트 공유가치(Shared Values)에 기반한 딜로이트 고유의 문화 정착은 물론 업무 방식까지 완전히 바꾸는 혁신을 점진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 딜로이트 안진, 2021 신입회계사 정기채용 실시

질적·양적 성장 이끌어 갈 인재 200명 채용 목표...글로벌 No.1 펌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 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글로벌 No.1' 프로페셔널 서비스 펌에 최적화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2021년 신입회계사 정기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은 2021년을 법인의 질적·양적 성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의 성장 모멘텀을 도모하는 해로 삼고, 회계감사본부는 물론 세무자문, 재무자문, 리스크자문 등 다양한 본부에서의 회계사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 200여명의 신입회계사 채용을 목표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정기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은 코로나 19 관련한 정부 방역방침을 준수해 진행될 예정으로 7월 12일부터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활용해 10여 개 국내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용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채용 설명회에서는 각 대학 출신의 리크루터들이 연사로 나서 예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AP) 합류 이후 더욱 강화된 글로벌 No.1 펌으로서의 인재 정책의 강점을 소개했습니다.

입사지원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홈페이지([www.deloitte.co.kr](http://www.deloitte.co.kr))내 커리어 섹션(Career Section)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 시 희망 본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2021 신입회계사 정기채용은 9월 2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으며, 이후 서류전형, 면접전형과 인성검사를 진행합니다. 최종 합격한 신입회계사들은 기졸업자의 경우 9월, 졸업예정자는 12월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딜로이트 안진은 모든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발휘되는 집단지성을 추구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 절차는 물론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정의한 인재표준(Deloitte Talent Standard)을 면접 프로세스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전세계 150 여개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No.1 펌인 딜로이트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포부와 열정을 지닌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이번 정기채용의 목표”라며 “지난해 6 월 딜로이트 AP 합류 후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업이 더욱 활성화된 만큼 개인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속에서 신입회계사들이 글로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 딜로이트 안진, 해사분야의 급변하는 국제 규제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국내 해사분야 전문 한국선급·오렌지씨큐리티와 공동 진행...친환경·사이버 보안 등 최신 규제 동향 공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 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국내 유일의 선급 기술단체인 (사)한국선급 (회장 이형철)과 해사분야 사이버 보안 전문회사인 (주)오렌지씨큐리티(대표이사 최성민)와 공동으로 진행한 ‘해사분야의 급변하는 국제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탈탄소화와 관련한 환경규제, 중대재해처벌법, 국내 사이버 인증제도 변화 등 해사업계와 관련된 제도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제 규제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50 여개 해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23 년부터 2026 년까지 연간 2%씩 탄소를 감축하는 안을 채택함에 따라 예상되는 해사분야의 경영환경 변화는 물론 내년 1 월 27 일부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코로나 19 로 가속화된 조선업 및 해운업의 디지털화 관련 규제와 인증 등의 동향을 공유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변동언 딜로이트 안진 수주산업분야 전문위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천강우 한국선급 팀장의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박개명 한국선급 팀장의 ‘디지털화 시대의 중요한 사이버보안의 국제동향’, 최성민 오렌지씨큐리티 대표의 ‘사이버 리스크 구축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재성 딜로이트 안진 재무본부 파트너는 ‘규제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창성 딜로이트 안진 재무본부 이사가 ‘규제로 인한 조사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실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국제 및 국내 규제 환경에서 해사분야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높이기 위해 각 세션에서는 해외 사례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규제 준수 방안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소송 및 분쟁 이슈, 조사 및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져 세미나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변동언 딜로이트 안진 전문위원은 “최근 친환경, 안전을 둘러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며 사이버 보안 위협이 전 산업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해사업계의 많은 기업들이 환경 및 안전 규제를 준수하고 디지털화 관련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 “아태지역 경제성장,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에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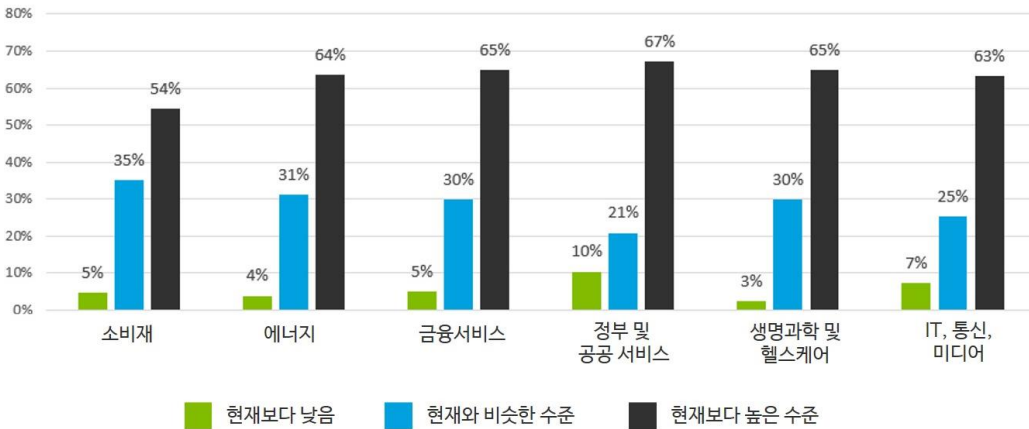
딜로이트 아태지역 클라우드 보고서 발표...클라우드, 2024 년 아태지역 총 GDP 중 1,600 억 달러 규모 아태 8 개국 비즈니스 리더 62%, “3 년후 클라우드 도입 더욱 가속화될 것”

딜로이트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대표이사 홍진석, 이하 딜로이트 컨설팅)는 딜로이트 글로벌의 ‘필수가 된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회(The cloud imperative, and Asia Pacific’s unmissable opportunity)\*’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클라우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하 아태지역) GDP 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1,600 억 달러(한화 약 182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8 개국(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6 개 주요 산업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보고서는 클라우드가 가져다 줄 기회와 클라우드 도입 장벽을 연구하고 개별 국가와 아태지역 수준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서 각 산업별 기민한 변혁이 요구되면서 클라우드는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태지역 8 개국, 600 여 명의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62%가 클라우드 기술 도입 수준이 앞으로 3 년 후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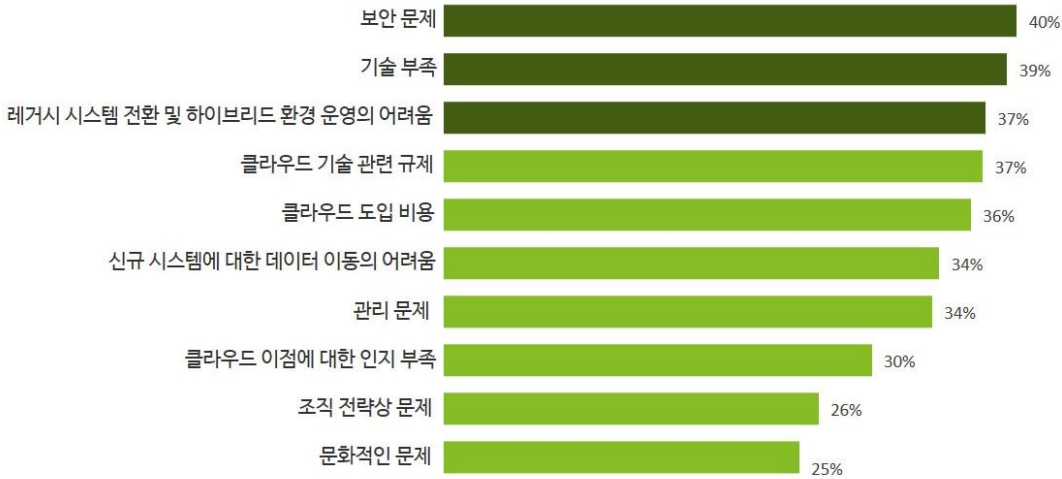
<표 1> 3 년 후 클라우드 기술 도입 기대 수준



또한 대다수의 아태지역 비즈니스 리더들은 ‘클라우드는 조직이 더 자주, 신속하게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우드를 도입함으로써 미래에 직면할 도전과제와 조직의 요구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명제에 각각 72%, 71%의 비율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변혁의 시기에 클라우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민첩하고 탄력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준비가 된 기업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태지역 기업 중 46%가 아직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49%로 아태지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40%), 기술 부족(39%), 레거시 시스템에서의 전환과 하이브리드 운영 환경의 어려움(37%)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표 2> 클라우드 기술 도입 장벽



댄 뉴먼(Dan Newman) 딜로이트 컨설팅 아시아퍼시픽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리더는 “클라우드 는 기업의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해 경쟁 우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와 성장 기회 등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며 “클라우드 는 기업과 산업을 넘어 국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기여하는 경제적 이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리더 겸 부사장은 “한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은 반면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여정은 클라우드와 분리될 수 없으며 클라우드의 잠재력에 기반한 접근 방식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보다 체계적인 방법론에 기반한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기업은 비즈니스 가치를 확대하고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수가 된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회(The cloud imperative, and Asia Pacific’s unmissable opportunity)’ 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8 개국과 6 개 주요 산업군을 대상으로 분석됐다. 보고서 분석은 딜로이트 산업별 전문가의 컨설팅을 포함해 IDC 의 퍼블릭 클라우드 지출 현황, 600 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기반이 됐다. 설문조사는 시장조사업체 입소스(Ipsos)가 2021 년 5 월 실시했다. 데이터 조함을 바탕으로 계량 경제 모델을 적용해 클라우드 기술이 기업에 가져올 이점과 거시적 경제 이점을 추산했다.

<처음으로 가기>

##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조직·인사솔루션 전문가 정현석 부사장 영입

한국시장 선도 조직인사 컨설팅사 출신...전략적 HR 컨설팅·인사솔루션 시장 선점할 계획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는 콘페리 컨설팅(Korn Ferry Consulting) 한국지사장 출신인 정현석 HR 컨설팅 전문가를 휴먼 캐피탈(Human Capital, 이하 'HC') 총괄 리더이자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애자일 혁신역량이 조직의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멀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적자본 컨설팅 서비스 분야를 선도하는 컨설팅 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라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현석 부사장은 고려대학교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MBA 졸업한 후 한화손해보험, PwC 컨설팅을 거쳤으며 머서(Mercer) 컨설팅 코리아 전무이사, 헤이컨설팅그룹(Hay Group) 지사장을 역임하며 조직관리, 인적자본 컨설팅을 이끌어온 조직·인사 솔루션 전문가입니다. 특히 최근 14 년간 헤이컨설팅그룹과 콘페리 컨설팅 한국지사장 및 아시아퍼시픽 리더 멤버로서 한국의 LG 그룹, 신한금융그룹 등 한국 주요 고객 서비스를 이끌었습니다.

정 부사장은 딜로이트 컨설팅 합류 후 다수의 국내 선도기업들의 조직문화 변화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PMI(합병후 통합) 컨설팅 프로젝트의 개발을 시작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기업들을 위한 디지털·애자일 지향 조직과 인사혁신 컨설팅에 집중하며 딜로이트 컨설팅 HC 서비스의 확실한 차별화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정 부사장 영입을 통해 딜로이트 컨설팅이 보유한 전략, M&A 및 테크놀로지 등 멀티 서비스 오퍼링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인사 솔루션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구조 개편, 글로벌라이제이션 가속화, 리더십 변화, 디지털 및 애자일 혁신 등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CXO 그룹에게 전략적 HR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는 파트너로서 향후 미래지향적 인사솔루션 시장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가기>



## 딜로이트 컨설팅, 고용노동부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수상

경영컨설팅 분야 유일한 선정기업...정규직 채용 확대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 등 인정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한 격려, 공유와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선정해온 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소규모 인증식 형태로 세종시에서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딜로이트 컨설팅은 11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수상기업 인증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노동부의 후보기업 발굴 및 추천 후 현장실사 및 의견 조회, 노사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전체 100개 기업 중 33개 중견기업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영컨설팅 분야에서는 유일한 선정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딜로이트 컨설팅의 선정 이유에 대해 △정규직 채용 확대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 노력(비정규직 감소 추이 18년 9.2%→19년 5.4%→20년 2.5%) △‘내부 순환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다양한 근무경험 제공(19~20년 총 126건) 등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 수여와 함께 신용평가 및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0여 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1~3년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홍진석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대표는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 고용 안정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으뜸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 딜로이트·스위스 상공회의소 공동, 제 2 회 DX 어워드 개최

딜로이트, 스위스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국 및 아세안 지역 디지털 혁신 사례 발굴  
기업 규모 관계없이 9 개 산업 부문 지원 가능...우승 기업에 상금과 다양한 홍보 기회 제공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딜로이트와 스위스 상공회의소(SwissCham) 및 다른 파트너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워드(Digital Transformation Award, 이하 'DX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2 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워드는 스위스-한국 비즈니스 위원회(SKBC)가 후원사로 참여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최고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자 2 년 연속 개최되고 있는 DX 어워드는,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기업들에게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보다 참가 부문을 확대해 첨단 제조, B2B, B2C, 금융 서비스, 사이버 보안, 보험, 헬스케어, 건축 및 인프라, 공급망 및 유통으로 이뤄진 총 9 개 부문에 대해 신청을 받게 됩니다.

한국과 홍콩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난 2 년간 9 개 산업 부문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성공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면 참가 가능하며 다국적 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비영리기관(NGO) 등 사실상 모든 기업에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9 월 12 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을 받으며 10 월과 11 월 각각 1,2 차 비공개 및 공개 프레젠테이션 세션 진행 후 11 월 30 일 각 부문별 우승자를 발표합니다. 이후 최종 우승자는 12 월 중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결정됩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15,000 싱가포르달러(SGD)와 트로피, 인증서, 평가보고서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상기업은 보도자료, 스위스 상공위원회 뉴스레터, 웹사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홍보활동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비즈니스 담화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사례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에덜린(Andreas Enderlin) 휴고 캐피탈 파트너스(Hugo Capital Partners) 파트너 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워드 회장은 "최근 디지털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워드는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기업가정신을 고무시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혁신적인 변화를 장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현정 한국 딜로이트 그룹 Innovation 리더 겸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부사장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화를 앞당기면서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워드를 통한 국내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사례 발굴이 기업 혁신을 위한 영감을 제공하고 기업 디지털화 기반 조성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워드 홈페이지(<https://deloi.tt/3lOp1Qe>)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으로 가기>



## “기후행동 바로 나서면 2070년까지 2300조 원 부가가치 창출”

딜로이트 경제연구소, “기후변화 무대응 시 2070년까지 한국이 안게 될 경제적 누적 손실 약 935조”  
첨단 제조업·서비스산업 기후변화 타격 최대...관광·건설·에너지산업 연평균 피해 10조 원 전망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23일 기후행동과 경제적 성장간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딜로이트 경제연구소(Deloitte Economics Institute)의 기후변화 경제보고서 [‘한국 경제의 터닝포인트 - 기후 행동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주도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역 연산가능 일반균형 기후통합평가모형(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limate Integrated Assessment Model)인 ‘D.CLIMATE\*’에 기반해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행동의 편익을 정량화 했습니다.

딜로이트가 분석한 미래 경제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이 기후위기에 무대응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처할 시 향후 반세기 경제적 누적 손실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약 93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70년 예상 GDP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주는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두 산업군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딜로이트는 한국 제조업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항구 등 해안지역 관련 인프라가 향후 50년 간 매년 평균 8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고, 경제 전반에 밀접하게 연계된 서비스산업의 경우 매년 평균 18조 원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상 이변 피해와 노동생산성 저하로 소매 및 관광, 건설 및 에너지산업 분야에도 매년 평균 전체 10조 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딜로이트는 한국이 205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C로 제한한다는 목표에 발맞춰 과감한 기후행동에 나선다면 2070년까지 약 2,300조 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2070년 한 해에만 국내총생산(GDP)이 약 295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한국 경제에 최고 가치의 다국적 대기업 하나가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 및 ESG 센터장은 “앞으로의 10년이 기후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선제적인 기후행동을 비용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기회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딜로이트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탈탄소화 경로를 다음의 4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첫 단계는 과감한 기후대응을 위한 준비 단계로, 지금부터 2025년까지 정부, 기업, 소비자 등 주요 시장 참여자들의 기후행동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시장에 달라진 가격 신호를 보내 탈탄소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2025년부터 2040년까지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확대, 관련 정책 마련, 경제 사회 구조 전반의 체계적인 전환을 통해 변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구조적인 전환에 비용이 수반되지만, 에너지부문 전환 가속화로 대체 재생연료 자원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2040년부터 2050년까지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면 다배출 경제구조 탈피는 어느 정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 혁신과 진보에 따른 경제적 순이익은 무역과 건설, 서비스산업 등 핵심 산업 전반에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기후와 경제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50년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경제성장 실현을 통해 저탄소 미래 구조를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옥수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후행동 및 지속가능성 리더는 “한국이 혁신적인 기술 허브로서 전 세계의 변혁을 위한 기술과 혁신을 제공할 수 있다”며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떠오른 탈탄소화 기술을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딕 필립(Pradeep Philip) 딜로이트 경제연구소 박사는 “불과 50년 안에 한국 경제는 935 조 원의 비용을 2,300 조 원의 이익으로 바꿀 수 있다”며 “세계 경제구조를 저탄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D.CLIMATE\***

딜로이트 경제연구소가 개발한 지역일반균형모형(Reg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RGEM)에 통합환경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을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으로, 다른 통합환경모형에 비해 산업별, 지역별로 다양한 경제적 피해 분석결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 지역일반균형모형(RGEM)과 달리 세계무역분석(GTAP) 데이터베이스와 완전한 CO<sub>2</sub> 및 비 CO<sub>2</sub> 배출계정을 포함한다. 기존 거시경제모형들이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을 기본 경제적 가정에서 배제하고 하나의 시나리오로 분석하는 것에 비해 D.CLIMATE는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기본 경제전망 모델링 프레임워크에 추가했다.

<처음으로 가기>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1.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